

연고대 반도체 계약학과 ‘의대급 경쟁’... 수시 합격선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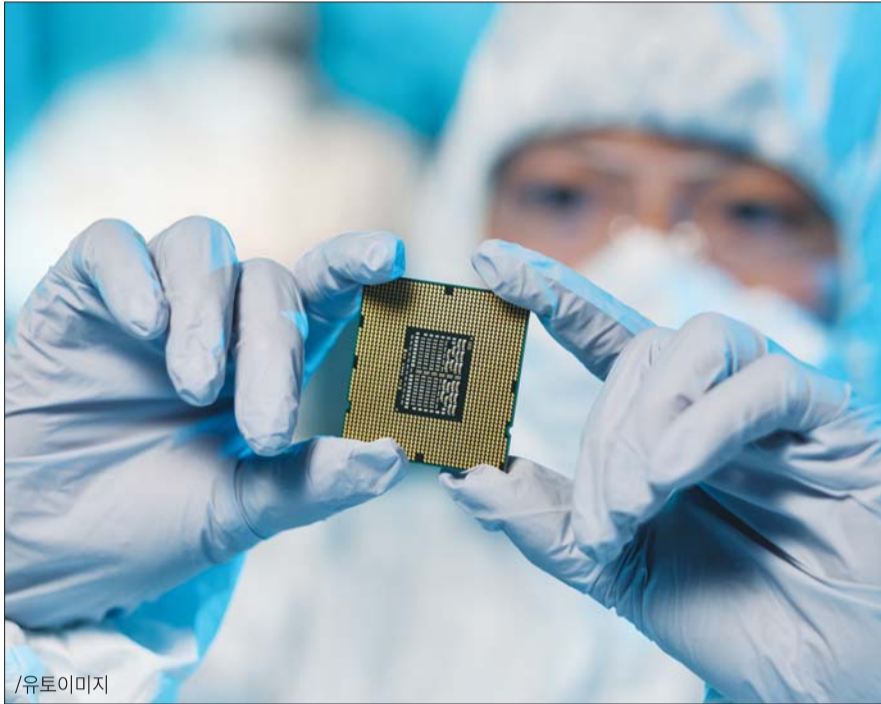
연세대 추천형 합격선 1.14등급
고려대 학업우수형 1.47등급 기록
삼성·SK 계약학과 선호 확대
의대·서울대 공대 쏠림 일부 완화
2027학년도 10개대 460명 선발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급’ 상위권 경쟁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중로학원은 2026학년도 합격점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각각 계약을 맺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반도체공학과 의 수시 내신 합격점수가 2021학년도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과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고려대는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유투이미지

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교과·종합 2개 전형 평균 내신 합격점수가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3.10등급) 첫 선발 이후 가장 높은 합격선이다. 선발한 연세대 교과전형 추천형은 ▲2024학년도 1.47등급 ▲2025학년도 1.20등급 ▲2026학년도 1.14등급으로

상승했다.

연세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2021학년도 3.10등급 ▲2022학년도 1.56등급 ▲2023학년도 1.53등급 ▲2024학년도 2.17등급 ▲2025학년도 2.15등급 ▲2026학년도 1.79등급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반도체공학과도 상승세를 보였다. 고려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내신 합격점수는 ▲2021학년도 2.40등급 ▲2022학년도 1.88등급 ▲2023학년도 1.89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1.82등급 ▲2026학년도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2021학년도 4.10등급 ▲2022학년도 4.38등급 ▲2023학년도 4.23등급 ▲2024학년도 3.85등급 ▲2025학년도 3.80등급 ▲2026학년도 3.88등급이었다.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평균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3.25등급 ▲2022학년도 3.13등급 ▲2023학년도 3.06등급 ▲2024학년도 2.99등급 ▲2025학년도 2.81등급 ▲2026학년도 2.68등급으로 상승했다.

2026학년도 기준 모집인원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추천형 20명, 활동우수형 38명 등 58명이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학업우수형 14명, 계열적합형 14명 등 28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점수는 상승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 10명 제한이 있고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반면,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5배수를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모집 규모는 총 460명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세대 100명, 성균관대 70명, 한국과학기술원 40명, 울산과학기술원 40명, 광주과학기술원 3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0명, 포항공대 40명 등 7개 대학에서 350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 40명,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등 3개 대학에서 110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의대와 서울대 공대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의대와 연고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관심 이동이 일정한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올해 1~12월까지 소급 적용 가능
납부액 환급, 예정 부과액 감액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연체료 50%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절차는 사용허가를 한 학교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북부서 인천공항 심야버스 달린다

30일 밤 10시 파주 금촌역서 출발
파주·고양 12개 정류장 거쳐 운행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10시 부터 파주와 고양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심야 공항버스를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파주금촌역을 출발해 파주지역 5개, 고양시 7개 정류장을 거쳐 인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

존 심야 공항버스, 2025년 이용객은 11만 3천여 명으로, 2024년 10만여 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노선 개설에 성공했다.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양 기관이 재정지원을 50 대 50으로 분담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통합 관광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 운영

용인시, 600여개 관광지 정보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통합 관광 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주소 입력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서비스로, 600여개

관광지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자의 이동과 체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관광 수요를 용인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넓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형 관광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보와 주차장 현황 등 교통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용인 투어패스’의 예약과 결제를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정보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여기에 최적화된 길 안내 서비스도 더해져 초행길 방문객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포은아트홀 등 지역 문화예술 거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숙박·체험 예약 플랫폼(OTA)과 협력해 관광 상품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7일(월) 음력: 3월 11일

수도권 날씨 11~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무 / 05:42 | 해짐 / 19:48

지역별 날씨: 연천 8/21, 동두천 9/21, 가평 7/21, 양평 9/21, 용인 10/21, 평택 7/21, 수원 10/21, 인천 11/19, 서울 11/21, 파주 8/20, 백령도 10/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서 충격...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어 /사진 뉴시스
▲트럼프 “용의자 단독 범행 추정... 이란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

▲미-이란 2차 종전협상 취소... 이란 “호르무즈 봉쇄 지속할 것”
▲이스라엘, 휴전 협정 지속에도 레바논 공격... 산발적 교전 지속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EU 방위조약, NATO보다 강력할 것”
▲미국 조지아서 대형 산불... 여의도 54배 면적 산불 피해